

# 격무에 시달리는 道 산하부서 해마다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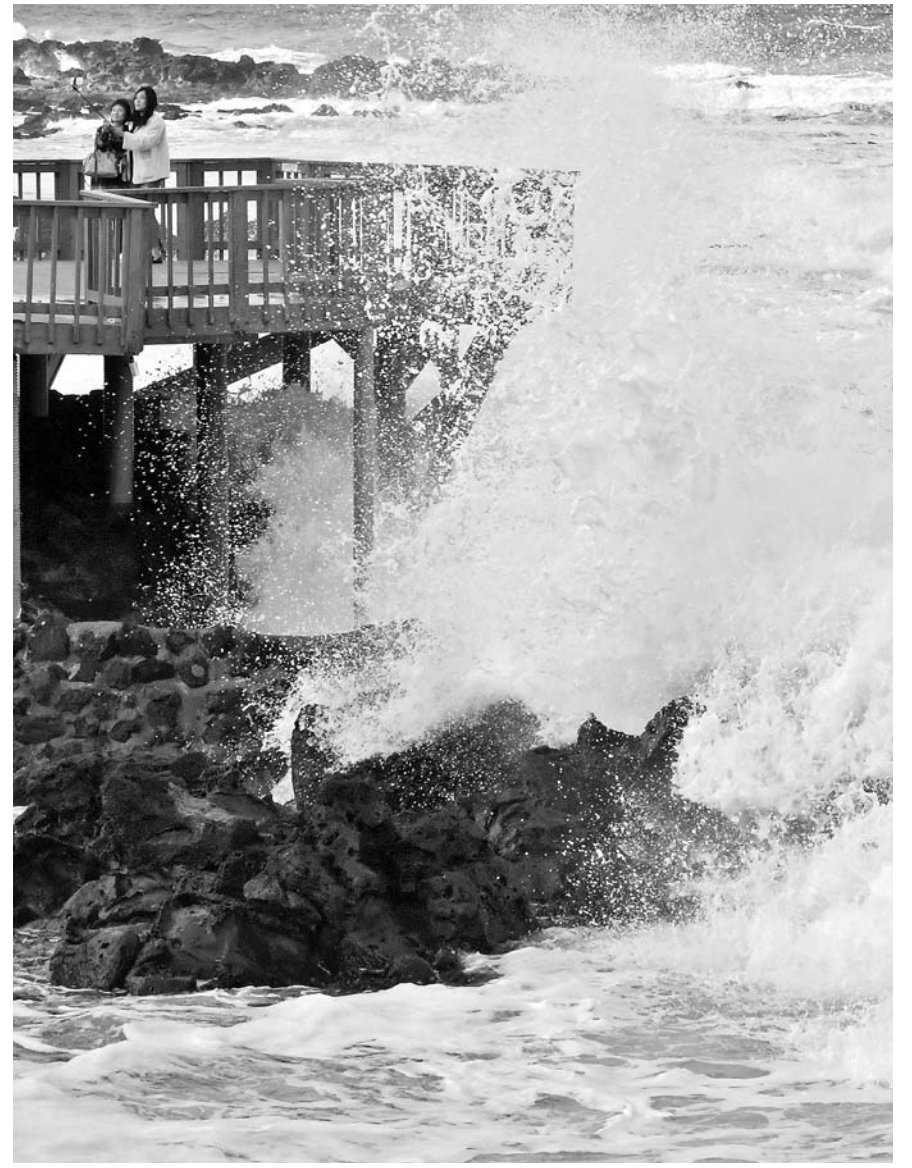
### 2015년 7개팀 지정 이후 지난해 13개팀으로 증가 택시행정·축산환경 4년째 지정... 올해 34개팀 지원

제주도 산하 부서 가운데 '격무부서'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2019년 격무부서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15개팀 모집에 총 34개팀이 지원을 했다. 격무부서 지정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를 발굴, 인센티브를 주

기 위해 지난 2015년 시행됐으며, 지정될 경우 A등급(5개팀) 월 0.005점, B등급(5개팀) 월 0.003점, C등급(5개팀) 월 0.002점의 근무평가점을 부여한다. 또 2년 이상 격무부서에서 일할 경우 희망보직을 접수 받아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외 연수나 모범공무원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연도별 격무부서 지정 현황을 보면 2015년 7개팀, 2016년 7개팀, 2017년 10개팀, 2018년 13개팀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4년 연속으로 선정된 팀은 택시행정팀과 양지공원팀, 축산환경팀이었으며, 장애인복지팀은 3년 연속(2015~2018년) 지정됐다. 올해 격무부서 지정되는 15개팀은 직원 전자설문 조사(70점)와 4급 이상 부서장 설문(15점), 노조 추천(15점)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 건당 5점의 감점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부서마다 현안 업무가 늘어나면서 격무부서 지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에는 격무부서 지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올해 각각 11개팀과 8개팀의 자체 격무부서 지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수능 한파와 풍랑주의보 '수능 한파'와 더불어 제주 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14일 제주시 이호해안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 순국선열의 날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4명 포상

### 김두성·양병시 건국훈장 애족장 김창환·허창두 대통령표창 추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독립에 헌신한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고(故) 김두성(金斗性) 선생과 고(故) 양병시(梁秉時)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 고(故) 김창환(金昌煥) 선생과 고(故) 허창두(許昌斗) 선생은 대통령 표창을 각각 추서 받는다. 김두성 선생은 함덕 출신으로 1930년 제주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고, 이듬해 1월 동지 한영섭의 장례식 때 깃발을 들고 혁명가를 부르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돼 징역을 1년 6월 선고 받았다. 또 1934년 4월경 제주에서 독서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양병시 선생은 한림 출신으로 1933년 6월 한림면에서 신사상에 입각한 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고, 동년 10월 제주도 농민조합 조직 건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천 출신인 김창환 선생은 1930년 2월 조천에서 제주청년동맹의 무인가 야학 설립·운영 관련으로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이듬해 2월 항일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허창두 선생은 대정 출신으로

1928년 6월 전남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중 항일 격문을 배포하다 체포된 동교생 이경채의 퇴학에 항의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번 포상결정자 중 제주도내 거주 후손이 확인된 김두성 선생은 17일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자녀 김민보씨가 전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8·15 광복절에 애족장이 추서된 고(故) 강평국 선생은 이번엔 유족인 조카 최봉기씨가 도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같은 날 전수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95)을 포함해 19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도, 폐가전 무상수거 우수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환경부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자체간 우수사례를 공유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무상방문수거 실적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건수는 2016년 4만8423대, 2017년 6만9024대, 2018년 8만5236대로 매년 늘고 있다. 송은범기자

## "법정사 항일운동 기억을" 서귀포 청소년들 캠페인

서귀포어울림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청소년 역사탐방기행 교육 '靑年千里行(靑년천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남주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서귀포중학교 등 서귀포시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서귀포시내 일원에서 제주법정사 항일항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청소년들이 지난 13일 서귀포시내 일원에서 제주법정사 항일항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서귀포어울림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청년천사행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주)천지고속관광, (주)한서경컴퍼니, 골든튠제주산상호텔 등이 후원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제주 3대항일운동(제주법정사·해녀·조천) 중 하나인 제주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를 찾는 등 현장탐방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고농도 미세먼지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3일간 지속될 것을 가정해 이뤄진다. 훈련 때는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실이 운영되며, 긴급 재난문자 발송, SNS, 전광판 등에도 홍보가 진행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 전면운행금지, 직원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다만 전기차와 긴급차량,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은 예외다. 아울러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일부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도 실시된다. 송은범기자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조특위 활동 연장

### 내년 2월 28일까지 늘려 "종합적인 증인신문 필요"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제377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16차 회의를 열고 '행조특위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였던 활동기


간이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기간 연장은 그동안 두차례 이뤄진 증인신문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집행부를 상대로 마지막 점검할 시간이 필요한데 12월까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회기가 이어져 활동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1월 초 마지막 증인신문 후 내실있는 결과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모범화장실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모범화장실은 청결하고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화장실일

신청하는 것으로, 제주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한국화장실협회 제주지회가 현장을 방문해 평가,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아름다운 화장실, 80~89점은 우수 화장실, 70~79점은 좋은 화장실로 지정된다. 송은범기자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통통 육아토크(놀이 특강)  
**'아이들 놀때랑 놔둬사주게~'**



아이가 놀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영유아의 놀이권을 지켜주는 방법

**강사: 편해문 놀이운동가**

저서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일시** 2019. 11. 23.(토) 14:00 ~ 17:00  
**장소**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제주시 수목원길9, 노형동 비원 앞)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보육교직원 등  
■신청 및 문의 : 064-746-2211(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 13회 재 제주시 성산읍 향우회 한마음 단합대회**

파란 하늘이 고운 가을날!  
풍요로운 마음의 계절에 향우회 여러분들간 애향의 꽃을 피우기 위한 '재 제주시 성산읍 향우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부디 함께 하시어 즐거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9. 11. 17(일요일) 09:30(식전행사), 10:00(개회식)
- 장 소 : 제주중앙고등학교 운동장
- 경기종목 : 노래자랑, 바구니 공놀이, 2인3각 릴레이, 줄다리기, 율놀이, 어르신 팔씨름, 어린이장기자랑
- 주 관 : 재 제주시 성산읍 향우회
- 연 락 처 : 향우회 사무실 ☎ 064)721-2727  
대 회 장 강대규 (010-3699-1144)  
진행위원장 정삼권 (010-3691-5622)  
준비위원장 김창수 (010-3691-3666)  
총무상임이사 현달환 (010-6755-0406)

※ 각 리향우회장 : 강재홍(오조) 고희성(성산) 한정우(고성) 김봉열(수선1) 강석근(수선2) 정용삼(신양) 정성필(온평) 김권삼(단산) 한추욱(신산) 강인성(삼달1) 김민건(삼달2) 김성택(신동) 현동주(신천)

**재 제주시 성산읍 향우회**  
회 장 강 대 규

**제2회 2019 세계환경수도포럼 개최**  
**'동북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 8주년을 맞이하여 '동북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2회 세계환경수도 포럼을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 11. 19 (화) 14:00**  
**장 소 :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금호관)**

□ 주최/주관 :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  
□ 행사내용 :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  
명예이사장 정운찬  
이 사 장 김부일